

‘12.07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포럼 개최결과

문화여가정책과

□ 포럼 개요

- 일 시 : 9. 25(화), 11:30 ~ 13:30 (2시간)
- 장 소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지하 1층 제 1~2회의실
- 참 석 : 문화부 직원 및 문화예술관계자 등 40여 명
- 주 제 : “이제 환경운동은 문화예술로 한다.”
- 초청강사

- 이 소 주 (보노보C 대표)

- * 문래예술창작촌의 문화예술단체 <보노보C> 대표, <대안공간 문> 운영, 문화기획자 겸 일러스트레이터
- * ‘골목길 점령 대작전’, ‘문래 창작촌 투어 프로그램’, ‘문래동 도시 텃밭’, ‘문래 ArtmeetSound’ 등 다수 프로젝트 기획

- 김 대 호 (에코디자인 및 공익마케팅 전문강사)

- * 현 (주)Resource Earth 이사, 서울시 ‘자원뱅크’ 자문위원, 서울호서전문학교 온라인 마케팅 자문위원, (사)Social Consulting Group 사회공헌 컨설턴트
- * 전직 (재)아름다운가게 에코디자인사업국장
- * 미래 경제를 선점하는 착한 혁명가들 에코 크리에이터(아이엠북) 저서
- * 2009, 2010, 2011 네이버 선정 파워블로그 운영
- * KBS 그린블로그 , 녹색연합 환경블로그, 어린이재단 온라인 홍보대사, 희망제작소 온라인 홍보대사, 앨리 홍보대사

□ 주요 결과

<이 소 주 | 보노보C 대표>

강연자 소개 및 강연 개요

- 안녕하세요, 저는 문래동에 문래창작촌의 <보노보C>라는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동에서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라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커뮤니티 아티스트(Community Artist)입니다.
- 타이틀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예술 즉, 커뮤니티 아트의 실천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함께 살아간다는 기본 즉,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생태계라는 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통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얘기하기 보다는, 산업적으로나 트렌트(Trend)로 이용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각자 생활에서 실천할 때 환경이라는 것들이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저는 고심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보노보C 소개

- 보노보C는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와 상반되게 평화적인 유인원(원숭이)과 City의 약자인 C를 붙여 만든 조어로, 침팬지와는 다르게 '보노보'처럼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제가 활동하는 정체성과 연계되는 말입니다.
-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문래동에서 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청년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 신진 작가들의 인큐베이팅(incubating) 역할도 하려 하며, 이와 연결하여 기업, 사회복지시설, 학교나 기관들을 통해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의미 이해하기

- 환경이라는 사물의 가치가 인식되어야 그 때부터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동네, 지구 나아가 우주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에 따라서 환경의 범위가 매우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주까지 생각하는 환경의 범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몸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주가 생성된 형태가 둥근 형태인데 공동체와 지구 모두가 둥근 형태이며, 우리가 사는 형태가 네모난 것이 아니라 모두 둥글게 둥글게 살아가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로나 생태계로나 환경의 둥근 형태를 원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예술 활동, 문래 창작촌 사례 소개

-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예술 활동의 사례로 문래창작촌의 사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문래창작촌은 영등포에 위치하는데, 영등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산업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나 IMF와 지방 산업시설 이전 등으로 급격하게 기능을 다한 곳입니

다. 지금도 공장은 많이 있지만 기반시설, 관련 산업업체들이 빠져 나가면서 10년 이상씩 비게 되어 공간 임대료, 월세가 낮은 곳입니다.

- 저는 2005년에 문래창작촌에 들어갔는데, 그 때 작업실 2개 중 하나에 입주하였으며, 이곳은 예술가들이 모여 작업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시설 면에서는 열악하지만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 작가들이 작업 시 소음을 내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자유롭게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심에 많지 않은데 서울 인근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라 매력적으로 느껴져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 2005년에 작업실이 2개, 2008년에 5개였는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00여 개인데, 1년에 작업실이 20여 군데씩 늘어나는 문래동만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970~80년대 활성화되었던 철공시설이 그 기반에 있고 그 사이빈 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기능을 상실한 구도심을 예술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재활용된다는 의미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적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재개발의 패러다임이나, 커뮤니티 아트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실험의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보면 왼쪽은 로켓 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문래동이 정밀기기 공장 밀집단지임을 소개하는 기사이고, 오른쪽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경성방직 사무실을 재활용하여 경방타임스퀘어에서 카페로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거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의 상업적인 상태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 활용되고 있는 사례

입니다.

- 영등포는 지금까지는 산업적으로 근대화 시절에는 중요했지만 문화적으로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 문화적으로 어떻게 도시를 재생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의 원칙과 범위의 확대

- 자료의 원을 보면, 처음에 제일 크게는 지역적 활동, 그 다음에 공간 커뮤니티 활동, 공공미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공미술부터 시작했습니다.
- 작업적 활동의 반경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먼저 실천했고, 사람들, 작가들이 함께 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작가들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게 공간적인 활동이나 문래도시 텃밭과 같은 활동으로 커지게 됩니다.
- 이를 영등포라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 문래동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재활용해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의 반경이 이 원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실천의 방법으로 보면 작은 것에서 실천해서 점점 모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원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활동을 할 때 원칙은 1.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한다, 2. 그 결과물이 의미 전달만 심화되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실제 활용한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작업의 끝까지 적용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옥수동 재개발 현장에 가서 쓸모없는 것들을 주워와 재생시켜 실제로 시설에서 쓸 수 있는 인테리어 용품으로 만든다든지, 물론 이에 의미를 집어넣고요, 제 작업실에서 사용할 수 있

는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 세 번째는 3. 과정의 소통과 활동의 소통을 생각하는 것인데, 과정에서 배운 이념들을 조율하는 것을 배우고 과정, 소통에서 나온 것들을 활용하는 상태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만든 것을 다시 소통하는 등, 일종의 매개의 상태로 생각하는 것들을 반드시 연관시키는데 이는 싸이클(Cycle)처럼 작용합니다.

1단계 공공미술 시작 : 재활용 재료로 사용가능한 작품 창조

- 보고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였음에도 설치 작업까지 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그림을 그려서 소통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함께 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공동 작업의 형태가 필요하게 되어 공공미술을 문래동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재활용 작업입니다. 3층에 공정무역커피 카페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로봇 정원이라고 하는 옥상에 올라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작업으로 작품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앉아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 가운데 보면 손 들고 있는 로봇 같은 부분이 있는데, 옥수동에서 주워 온 창문으로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꽂아 놓고 사람들이 책을 보게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책장에 있는 문짝을 누군가 떼어 가기도 하고 책은 막아 놓지 못하여 햇빛을 받아 낡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현재는 지역적 활동으로 '올래 문래' 라는 투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이 작품을 작업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2단계 커뮤니티로 넘어가기 : 공공의 공간

- 그리고 다음 단계인 공공미술에서 커뮤니티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서 제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을 3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끼리 '애니집'이라는 그 건물의 공동체로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 그 실패요인은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에서 작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공간을 점거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의가 상하면서 어느 한 단체가 공간을 더 쓰고자 하여 잘 운영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공동체 운동을 2009년에 하면서 공용공간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20명 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청소하고 남자들은 힘을 써서 물건을 나르고 여자들은 간식이나 점심식사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형태와 비슷하게 운영되었습니다.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영화도 보고 회의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썼는데 이 또한 사용되지 못한 이유가 공간을 쓰게 해 준 분이 실제 소유주의 동생분으로 소유주가 사망하면서 그 소유권이 전 부인에게 넘어가는 등의 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간을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고, 1년 동안 노력한 공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이런저런 한국에서의 공동체로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세 번째 만든 공간이 '대안공간 문'인데, 문래동의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소유권에서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생각하면서 만든 공간입니다.

-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공간 운영을 지향하며 독립적인 것을 주장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디밴드들의 자생적인 공간이 되고 싶어 매달 첫째, 셋째 주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업화가 된 홍대의 대안으로서 문래동이 인디음악의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 과거에 식당으로 엄청나게 허름하고 지저분한 공간이었으나, 지금도 화려하게 변하진 않았지만 이를 탈바꿈하여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두 차례 공연 후 많은 외국인이 왔다 갔으며, 방문자들이 어떤 공간인지 그 성격을 의아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3단계 지역 활동과 연계 : 도시텃밭

-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문래동 도시텃밭'인데요, 이 나온 이미지는 일러스트 작업을 제가 한 것인데, 문래도시 텃밭의 이미지와 가장 부합합니다. 옥상은 텃밭으로 구성됐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요, 1층에는 벽화가 있고 행사가 수시로 벌어지고, 단지 예술적인 텃밭을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공간을 생각하면서 기획한 것입니다.
- 만들게 된 계기는 예전의 돼지 소가 병에 걸려서 대량으로 폐사되는 동영상 보고 나서 참담한 기분을 느꼈던 데서 비롯된 것이며, 동물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라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인식하게 된 데서부터입니다.
-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데 그게 진정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히 피해가는 것

이라고 봤습니다.

-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텃밭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순간 때마침, 같은 동네에 있는,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인 김정헌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텃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동네에서 할 건데 동네사정을 잘 하니까 한 번 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 문래동 옥상은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하나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여기에서 소유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깨끗한 곳은 아예 문을 잠가 놓고 쓸 수 없게 하는 곳, 아예 열어놓고 그냥 둔 공간은 이사할 때 등 쓰레기를 버려 놓는 공간으로 쓰나미가 지나간 것처럼 옥상이 난리도 아닙니다.
- 이런 공간을 보면서 공간을 재생·재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텃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여 함께 먹자라는 공동체적 의미가 가장 우선이었고, 구성원들은 지역 주민, 소셜 디자이너들, 예술가들 등 다양했습니다.
- 목표는 ‘살기 좋은, 사이좋은, 보기 좋은’으로, 공간이 삶을 이루는데 텃밭이란 장소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실제로 평수가 넓진 않은데, 작년에 문래 텃밭 활동이 서울 내 우수한 텃밭 운동으로서 환경운동으로 서울 시장상도 받았는데 공동체 활동의 좋은 사례로 상을 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현재는 환경운동가, 기획자들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기획한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잘 넘어가는 상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좋은 기획이었지만 완벽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공동체나 환경은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되며

그냥 두면 도태되거나 나쁜 상태가 되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공동체도, 텃밭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은 텃밭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텃밭에 동참하는가를 고민하는데, 물주기 당번이 제일 관건입니다. 텃밭은 땅에다 심는 것과는 달리 매일같이 사람들이 물을 줘야 하는데 물당번이 매일 2명씩 정해져 있으나 인원수가 적을 때는 물관리가 또 힘듭니다. 텃밭이 정착되는 초기에는 저랑 몇 명 기획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매일 와서 물을 주고 텃밭이 죽지 않게끔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 이런 저희의 노력들을 보고 어떻게 참여할 지를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알아서 들어오면서 친분관계가 생기는 등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 점차 형성되어 지금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사지낼 때 직접 돼지를 잡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서 돼지 머리를 마련하기도 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현재는 양봉도 하고 있습니다.
- 자율당번제도 하고 있고 개인텃밭과 공동텃밭을 분리하였으며, 온라인 카페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과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흙을 만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공동체 활동이 잘 이루어졌다는 점, 그게 되면서 환경에 대한 작은 가치들을 환경에 대한 전체, 환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알게 되면서 작은 내가 살면서 어떻게 텃밭,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곳으로서의 문래동

- 지금 자료는 옥상에 올라가 텃밭 관리를 하면서 힘들 때 쉬면서 자주 보게 되는 석양 풍경입니다. 여자 모습은 문래동 작가의 조각 작품인데, 이렇듯 작품과 텃밭과 근처의 도시 풍경이 잘 어우러져 있어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 문래 창작촌 투어 '올래 문래'는 공공미술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투어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것인데, 왜냐하면 문래동이 산업문화, 경제적 문화로도 가치가 있고 현재 예술 문화 특히 이 중 커뮤니티 아트가 활성화되어 산업문화와 예술문화가 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잘 소개해서 독특한 한국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 그래서 지역적인 재활용,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문래동을 1차적인 상태로 보면 그냥 철냄새 나거나 복잡하거나 지저분한 이미지로 생각되는데 투어를 하면서 설명이 되면 달라진 눈빛을 만나게 됩니다.
- 의미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환경 예술 운동이 너무 거시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피부로 느끼고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사실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내어 의미를 갖기를 바라며,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사례를 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문래동에서 제가 했던 투어 내용인데, 각 공간들이나 벽화, 골목길 문화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실천이 환경운동에서 갖는 의미

- 제가 문래동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행하면서 분석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반하여 지식인, 전문가들이 계속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여 제가 감정적으로 힘이 빠지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물론 저를 단련시켜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 그 때마다 생각하는 게 실천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차원 재미는 한 줄로 갈 때 앞에 벽이 생기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나 이를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실천적으로 누군가가 보여준다면 나머지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구나를 깨닫고 여러 갈래의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더 큰 높은 벽을 만나면 본래는 못 올라가고 막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재미가 있어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믿음이 있다면 말로 설득할 필요도 없고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은 집단운동이어야 한다

- 다음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세상의 흐름을 온전하게 바꾸고 싶어 한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문래동의 존재가 대작가 한 명의 탄생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한 사람의 대작가가 트렌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는 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이나 그 말을 몰랐을 때의 지식적인 계급 상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문래동의 활동이 작가 1명이 유명해지는 상태보다는 문래동 자체의 이미지가 나오는 예술적인 상태나 그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래동의 상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때 사람들이 부지런히 알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 연관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진짜 가치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십시일반'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함 없이 자기가 뭔가를 가졌을 때 항상 나누는 상태, 가지고 있다는 상태를 계속 없애는 상태가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의 사례를 보여 드렸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 · 응답 1 >

Q : 커뮤니티 아트 안에서 텃밭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이자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상황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 현재 시행되는 트렌드 연구가 예술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서울시에든, 영등포구에든, 문화부에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 (이소주) 일단은 텃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민하며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경우가 많았다.

문래동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고양시에 갔는데, 여기에서 느낀 것이 30분만 나가면 다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었다.

- 갑자기 혼란이 왔다. 이렇게 땅이 많은데 왜 옥상에서 비용을 많이 들여 텃밭을 조성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들었다.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텃밭에서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텃밭을 통해 커뮤니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도시의 놀이터 공간을 만드는 게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
- 도시에서의 커뮤니티 활동과 시골의 커뮤니티 활동이 다른데, 텃밭이 가지는 의미는 주말 농장과 같은 곳에 멀리 가지 못 하는 사람들, 사람과 만나 소통하고 싶은데 멀리 못 가는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 텃밭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가능하나 텃밭이 중요한 것은 식물, 생물이 주는 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흙을 만지고 하루하루 자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간증을 하면 나부터 그러하다. 그런 부분에서 텃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텃밭 활동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
- 관공서에서 텃밭 활동을 지원할 때 통로를 잘 몰라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시행하려다 보니 항상 하는 사람들, 상업적인 작가들에게 지원을 하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보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가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느낀다.
-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 중이며 사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 일

환으로 나 같은 사람들이 지역의 활동가를 개발해 내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텃밭 운동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 이 활동에 대한 지원이 경쟁 형태의 공모 형식인데 이를 바꿔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수치적으로 잘 보여주고 상담해서 진행하는 형태였으면 한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달려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 현장에서 보고 이를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한다.
- 물론 비용의 문제나 심사의 문제가 있지만 이를 고민해서 좀 더 민원과 같은 쉬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으면 한다. 지금 지원의 형태가 세무 회계사 정도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재정을 처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기획자밖에 안 남게 되므로 지원 체계를 고민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텃밭을 통한 소규모적인 활동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마을 창작과 관련하여 공모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Q : 오늘 강연을 여유를 갖고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기획이나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요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소주 강연자님은 도심 안에서 텃밭을 가꾸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 일반인에게 여유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시는지,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공분야와 관련이 되어서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지 궁금하고,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지 또한 궁금하다.

- (이소주) 나의 경우 예술가의 입장에서 문래동에 입주한 게 아니라 작업실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입주하고 와서 보니 문래동에서 벌어지는 상태, 시대와 맺어진 상태, 재개발 논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다.
- 이를 고민하게 되면서 시대, 사회 등 여러 가지가 피부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나를 둘러싼, 나를 살게 한 생태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문래동이 나의 생태계의 중심지니까 이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시대와 맺어진 부정적인 요소를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발전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 예전에 촛불집회에 가서 뭔가 모르는 답답함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함께 촛불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잠깐 느꼈지만 동시에 그 상태의 한계를 느꼈다. 문래동에 와서 그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나아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형태를 생각했다.
- 작업 쪽으로도 문제가 닦쳤을 때마다 그림책 작가이면서도 세상에 대해 잘 모른다는 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었지만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 상태가 합쳐지면서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생각하며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그러면서 3가지 원칙을 생각했고, 아이디어를 어디서 뽑아 오기 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느꼈을 때 필요한 기획을 했다.
- 의도해서 정책적으로 맞춰서 어떤 게 이로우까 생각하기보다 나,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획들을 했다. 절묘하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트렌드가 맞는다든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초점

이 맞는다면 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다.

- 유럽에도 텃밭 사례가 있는데 버려졌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활동을 예술가들이 그 땅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작업으로서 진행한다. 땅 모양으로 씨앗을 심어 작품처럼 보여준다든지 하여 텃밭과 식물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윈도우 텃밭이라고 하여 수경재배로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를 활용하여 창문에 걸어서 텃밭식물을 재배하며 직접 뜯어 먹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이 생명 공학자들의 활동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융합 미술과 같다.

Q : 커뮤니티를 처음 운영할 때 공간을 옮기기도 했고, 지금은 대안공간 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은 알려져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커뮤니티 작가들이 모여 비용을 같이 나누었는지 궁금하다.

- (이소주) 문래동에서 처음에 내가 제안을 해서 2008년에 사람들 10명 정도가 모여 '그날'이라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제안하지 말자'가 목표였는데, 2008년에 문래동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고, 그런 스트레스의 발로로, 모이면 차 마시고 밥 먹고 사회적 기업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 정도를 가졌다.
- 내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좋은 차가 있으니 나눠 먹고 싶다는 그런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것을 나누는 형태로 회비 없는 운영을 했다. 기획의 모든 기반은 십시일반인데, 인쇄물도 몇 만원씩 몇 십군데를 모으면 몇 십만원이 되니까 누군가 재능기부를 하기도 하고 오픈 스튜디오 할 때도 집들이처럼 식사 다과 준비에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했다.

- 물론 이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내부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능력이 떨어져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 본인은 지금 지원을 받지 않고 공간 운영, 단체 운영을 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독립의 상태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지원을 받아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지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Q : 이전 포럼에서 봉가봉가 레코드의 고건학 대표님은 ‘지속가능한 탄탄 라질’ 이 목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커뮤니티 아트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보다 장기적인 구체적인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이소주) 나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즐겁게 사회를 살게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가 예술가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학, 대학원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들이 생계를 위해 뛰어다니다가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다. 예술가의 재능이 사회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며, 재능이 필요한 곳에서는 예술가를 쓰면서 비용적인 지출이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윈윈(win-win) 상태가 되기를 희망한다.
- 작년부터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게끔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나아가려 한다. 목표는 결국 ‘잘 먹고 잘 살자’ 이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계

급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만드는 데 저와 보노보C가 일익을 담당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상태의 기반으로 중요한 것이 이 도시에서 교육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는 것인데, 원활히 잘 되기를 염원한다.

<김 대 호 | 에코디자인 및 공익마케팅 전문강사>

에코크리에이터란?

- 저는 에코크리에이터(eco-creator)라고 소개되긴 하지만, 저도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친환경과 관련한 것이고, 공익사업을 기획하는 일입니다.
- 원래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7년 정도 일을 했고 지금은 가게를 나와 다양한 사업에 다리를 걸쳐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소서스'라고 폐기물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 친환경 사업 분야 자문 기획 등을 하고 있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에코크리에이티브 등의 각종 활동 프로젝트 기획, 칼럼,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 저는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특수한 기술이 있지도 않으며, 단지 친환경적인 공익사업을 기획하고, 에코크리에이터라는 책도 쓰고 해서 제 자신을 에코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합니다. 에코크리에이터는 무엇인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책에서 정의한 내용으로는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사람입니다.
- 오늘은 환경과 문화에 대한 강의인데, 환경적인 문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에 관련해

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

- 자료 사진을 보면 사막 위에 배가 있는 신기하고 진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아랄해(Aral Sea)라고 하는 호수로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업이 성행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물이 다 말라 버려서 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이곳을 모두 떠났습니다.
- 서울, 한국에서 사는 분들은 많이 못 느끼겠지만 극지방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극단적인 지구 온난화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아열대 기후 정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극동아시아의 정취가 10년 이내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 ‘박노자(1973~)’라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문학에 빠져있었는데, 대학 시절 한국문학책을 보다가 ‘수풀이 우거지니……’ 라는 구절을 보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절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귀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치는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면 그런 경치에 반하여 오는 외국인들은 더 이상 없겠지요?
- 빙하의 1/3이 녹아내리고 있고, 급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종의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아열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만이 살아남는 상태로, 동식물, 생태계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비와 환경 파괴와의 관계

- 고릴라와 핸드폰의 상관관계를 아십니까? 고릴라 멸종은 핸드폰의 사용과 연관되는데, 핸드폰을 만들 때 쓰는 핵심 원료 중 하나인 탈탄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탈탄은 콜탄을 제련해서 만드는데, 이 콜탄의 매장지가 하필 몇 남지 않은 콩고의 고릴라 서식지입니다.
- 원래 콜탄이 쓸모없는 광물이었는데, 핸드폰 시장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콜탄을 다른 말로 ‘블랙골드’라고도 하는데, 전세계의 밀렵꾼들이 모두 다 고릴라 서식지로 들어가 이를 채취하기 혈안이 되어 고릴라를 내쫓고 고릴라를 식량 삼아 먹기조차 한 것입니다.
- 급속도로 고릴라가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콩고의 정부군과 반군이 오랜 시간 동안 내전 상태인데 이 두 진영이 콜탄을 팔아서 군자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본이 메마르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저 매립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도 치열합니다.
- 핸드폰을 우리가 자주 바꾸는데요, 과연 우리가 고릴라의 멸종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핸드폰을 소비하는 마지막 주체는 현대인이기에 그 상관관계를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어떤 환경업자가 현재 지구 수명이 24시간으로 따졌을 때 저녁 9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이후로 급속도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파괴는 어떤 특정한 사례, 쓰레기를 버린다는가, 바다에 폐기물을 버린다는가 하는 행위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1분 1초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특히 현대인은 늘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탄소량 때

문입니다.

- 이 탄소량이 현대인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라는 개념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농사지어 재배하여 먹었는데, 현재는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 먹는 행위가 해외 무역을 통해 들어 온 것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탄소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발생합니다. 먹거리조차 사실은 탄소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 우리가 옷을 한 벌 사 입을 때, 이 옷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동반되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화학염료로 면화를 만들기 위해 염화하고 경작지의 삼림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합성섬유화하면서 여러 가지 아토피, 오염, 변이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공장을 돌리는데, 이 안에서 아동노동, 부당행위, 노동착취 등이 일어납니다. 애플조차도 중국에 폭스콘 사건을 일으켰을 정도로, 전세계 대기업들이 대체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 때 이 소비는 우리가 하지요.
- 해외 수입을 하면서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판매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사용, 홍보활동, 종이 사용, 과소비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한 처리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옷을 한 번 입고 놓아두고 패션사회이다 보니 금방 자주 바꾸는데 이러한 쓰레기 문제, 매립지 문제 등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현대의 옷들이 화학적 성분이 많이 추가되어 자연으로 돌아가서 썩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이 순간에도 우리는 소비를 하는데 환경에 대한 파괴는 특별한 계층,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인간이 자원을 소모하는 방식에 관한 재고가 필요

- 영화 매트릭스의 장면인데요, 이 부분이 명언이라고 생각하여 따왔습니다. 스미스 요원이 반군의 수장인 모피어스를 설득할 때 한 말인데요, 매트릭스 내용은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플러그를 몸에 꽂고 가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모피어스, 네오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플러그를 뽑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스미스 요원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깨닫게 되었다. 네 종족을 분류하다가 영감을 얻었지.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들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모든 자연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너희의 유일한 생존 방식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야. 이 지구에서 똑같은 방식을 따르는 유기체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바이러스야. 인간들이란 존재는 질병이야, 지구의 암이지. 너희는 역병이고, 우리가 치료제다.

- 저는 아무리 영화 대사이지만 이에 반박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구 입장으로 보면 이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이란 책을 읽었는데, '도시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시가 환경파괴로부터 보호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한 군데에 묶어 났기 때문이다.' 라며 인간은 퍼져 나가면 환경을 파괴하니까 도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꾸로 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면 '웰빙(Well-being)' 이라고 하여 귀농을 생각하는데, '과연 농촌으로 가는 게 옳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산 문화가 발달하면서 산에 새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소음을

내면서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짹짹하지 못하고 알을 낳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 인간들이 가는 발걸음에 사실은 스미스 요원이 말한 이타적인 존중이 없는 것이며,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도 하나의 유기체이고 유한한 자원인데, 그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바이러스처럼 소모하는 것입니다.
- '울고 싶어라'를 부른 가수 '이남이(1948~2010)'씨는 암으로 사망하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암이 저 죽을 줄 모르고 나를 죽이네.' 이게 인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인데,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지구의 자원을 극단적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사실은 지구에서 결코 긍정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는 게 옳은가? 지구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혁명과 같은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세포가 자신이 암인 것을 인식하고 환경을 적당히 파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늦추기가 대안이다

-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인간은 거꾸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금씩 늦출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20대의 90%를 길거리에서 보냈습니다. 혈기가 넘쳐서 체 게바라처럼 살아보고자 했는데, 10년간 거리에 살면서 느낀 것은 네거티브(Negative)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인데, '안 된다, 못 한다, 이걸 하지 말아라.'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인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을 할 때 금지하는 것만을 생각하면 동굴로 돌아가 원시사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와 과학과 기술은 단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늘 진보해 왔습니다.
- 중요한 것은 어떤 진보를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나으며 오히려 생산적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쓰지 말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이렇게 써 보자가 중요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하며 멈추는 것보다는 늦추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지구도 유한한 자원이므로 지구는 언젠가는 (자원으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를 안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러나 좀 더 수명을 길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꾸는가가 중요하다

- 저는 세상을 바꾸는 데에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사상,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자본, 네 번째 기술입니다. 사상이 세상을 바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집단지성 사회이므로 새로운 사상 하나가 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간의 지성의 진보는 거의 끝에 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떤 철학을 심어서 세상을 바꾸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로 환경보호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학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로서의 아이디어를 필요하는 환경운동

- 얼마 전에 녹색당 문화정책팀 관계자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녹색당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은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미학'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녹색당을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민주노동당, 진보당, 사회당과 같은 좌파 그룹으로 생각하며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녹색이라는 가치는 정치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책적인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색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싸울 것이 없으며, 녹색이라는 것은 매우 미학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 녹색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청량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네거티브보다는 파지티브(Positive)한 정책을 녹색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저는 좋은 일에도 아이디어, 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부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창의적으로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혁신, 에코크리에이티브

-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즉, 환경보호에서도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벽이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는 국가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고 그 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쉽게 만들고 벽을 낮게 만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 시민이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과 문화가 만나면 대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문화가 만나면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혼합이 될 때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는 가치와 문화, 시민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에코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삶에서 환경파괴를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인 것이고 문화도 라이프스타일이므로 그렇기에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환경보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의 핵심요소 3가지

- 에코크리에이티브의 핵심요소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업사이클(upcycle)인로, 재활용(recycle)을 업그레이드하여 한 단계 높은 방법으로 추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효용 가치를 높여 용도를 재창조하는 것이 업사이클의 방식입니다. 현대 문명이 무소유를 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는데 그 무소

유의 방식을 바꾸면 재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hybrid) 인데,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저연비이나, 저는 다기능, 다용도를 추구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 최고의 환경 사업품은 스마트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환경운동가 분들은 의아해 하시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많은 분야의 전자 부품 시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게 해 줍니다. TV, 카메라, MP3 기능이 다 되므로 또 다른 소비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것일지도 모르나 지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를 줄이므로 이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시간을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진보시키는 것이 환경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인데 자원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술이 진보하면 반도체 시장이 진보하면서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로로도 엄청난 연산식을 계산해서 테라바이트를 돌리는 기술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철을 그만큼 덜 생산해도 되고 그에 동반되는 에너지 소모도 적어지는 이런 방식의 미니멀리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의 사례 1. 벽화를 통한 환경 변화

-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는 공간 업사이클의 예인데, 미술과 시민들이 만나서 지역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브라질의 파벨라 페인팅(Favela Painting)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브라질의 파벨라 지역은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은둔한다고 할 정도로 위험한 슬럼가입니다. 미로 같은 구조라서 잘 적발되지 않아 전 세계 마약사범들이 은신하기도 합니다.

- 공권력이 개입하기 힘든 곳으로 브라질 정부에서도 여기를 포기하였는데, 네덜란드의 그래픽 디자이너 예로엔 쿨하스(Jeroen Koolhass)와 드레 울하흐(Dre Urhahn)가 MTV투어를 통해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참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 벽화가 늘어나고 아름다운 색이 곳곳에 있다 보니 이 지역의 거주민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친절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실질적으로 커뮤니티도 구성되고 언론에도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후원자가 생겨납니다.
-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후원금이 모금되면서 파벨라 전지역으로 벽화가 확대되었는데, 두 사람의 예술가로는 그 면적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시 대부분 실업자였던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기 시작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만들게 된 겁니다.
- 그 안에서 자랐던 불량, 비행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직업도 갖게 되었으며 덩달아 범죄율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10년간 노력했음에도 줄지 않던 범죄율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25%나 줄었습니다. 문화에는 이렇듯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파벨라 프로젝트는 브라질을 넘어서 전세계 슬럼가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의 사례 2. 낡은 공간을 색으로 재창조

- 이러한 도시 재생의 예로 또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훈데르트 바써 (Hundertwasser) 아파트인데요, 훈데르트 바써는 동화같은 색채로 디자인을 해서 ‘반지의 제왕’ 세트도 디자인한 거장인데, 이 분이 주목한 것은 미술이 캔버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로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30년 전만 해도 빈민들이 사는 낡은, 죽은 아파트였던 이 아파트에 훈데르트 바써는 동화같이 예쁘게 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쳤으나 이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칠을 하여 오스트리아 지역 명소가 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방문객이 오게 됩니다.
- 그 결과 집값과 땅값이 매우 오르게 되었는데도 원주민들은 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 드리면 놀이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훈데르트 바써의 생각은 ‘공장에서 낡은 쓰레기만을 접하는 사람들이 왜 쓰레기 같은 곳에서도 일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서 쓰레기 같은 공간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바깥뿐만 아니라 안까지 개조하여 알록달록한 놀이 공간처럼 만들었고, 그 결과 일하는 사람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내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프로젝트를 각종 공장, 쓰레기 매립지, 낡은 공간에 계속해서 훈데르트 바써가 진행했는데, 미술과 도시재생이 만나서 새로운 흐름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의 사례 3. 재활용과 디자인의 만남

- 재활용과 디자인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예로, 에코이스트(ecoist)라고 하여 사탕봉지로 핸드백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뉴요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은 트럭 덮개를 재활용하여 패션상품을 만들어 연매출 500억원을 올립니다. 아이폰 케이스도 만들어 엄청난 판매를 합니다. 디자인과 환경이 결합한 예입니다.
- 환경이 문화, 마케팅과 연합한 예로, 유니클로의 리사이클 캠페인을 들 수 있는데 대형 옷상점으로 환경운동의 적으로 생각되던 유니클로에서 자사의 안 입는 옷을 소비자로부터 회수하여 제3세계로 420만 벌을 보냈습니다. 문화마케팅과 본인들의 핸디캡(handicap)을 환경문제로 극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MTV에서 버려진 카드를 가져오면 기타 피크로 만들어주는 것을 했는데 이 또한 마케팅과 문화가 섞여서 친환경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 커브미디어(Curb Media)라는 광고회사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그래픽을 합니다. 이들은 먼지를 닦아서, 빗물 위에, 태양 열로 지지서 로고를 만듭니다. 화학적인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 더 이상 환경파괴를 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스웨덴의 한 공항 리무진 회사는 공항 입구에 차량 50대로 버스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차량 50대가 소모하는 에너지를 버스 1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마케팅과 환경을 결부시킨 사례입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의 사례 4. 예술 작품에 드러나는 환경 이슈

- 밥 말리(Bob Marley, 1945~1981)의 테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지금은 거의 듣지 않는 버려진 레코드판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 버려진 휴지종이로 동화작가를 하는 작가도 있고, 패션 일러스트를 버려진 플로피 디스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를 가져다가 응장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1963~)은 버려진 캔을 재활용하여 작품을 하기도 합니다. 먼지를 제거하여 벽화를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에코크리에이티브 정의 정리

- 저는 이런 것이 에코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 내에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디자인 안에서 공간을 재충전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 질의 · 응답 2 >

Q : 젊은 분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뜨겁다. 본인은 대학에서 환경 분야 최고 과정을 맡고 있고 기후변화가 관련한 전공을 하고 있다.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고, 소설

하나가 영화 하나가 시대를 바꿔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연구에서 지금 환경 기후 변화 관련한 실험 연구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의미 있게 접근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 가장 힘든 게 음식찌꺼기인데 올해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처리가 현재 문제이다. 그 동안은 바다에다 버렸는데 원자 폐기를 못지않게 오염이 심각하다. 폐수는 처리할 수 있지만 생활하수는 처리하기 힘들다. 여러분들이 삼푸하면서 버리는 물들이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다.

유명한 환경설치가(훈데르트 바서)의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데, 얼마 전에 연구와 관련하여 한 오래된 집을 장마 때 습기가 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하였는데, 그 주민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유는 전셋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다. 골목에 본인의 집이 있을 경우 환경디자인, 골목 디자인을 반기지만 월세, 전세가 올라서 쫓겨나지 않을까 고민한다.

또한 텃밭을 가꾸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나이지리아의 빈민굴에서 푸대 자루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채우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 텃밭을 가꿔서 희망을 나누는 행사가 TV에서 방영된 사례가 떠오른다.

이렇게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활동, 동반 성장인데 예를 들어, 석면이 문제라고 하면 석면 관련 산업이 모두 다 죽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서 환경 문제에 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접근 보다는 원인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해주었으면 한다.

현대는 아이디어 등에는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원인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이 포럼에서 준다면 좋겠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산업적인 텃밭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텃밭을 가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질문 아니어서 답이 없음]

< 정리 >

- 오늘 강연한 분들을 문화 현장의 분들이라고 칸막이를 설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예술이 환경에 관한 이슈와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환경문제는 하루하루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포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